

1년새 기업대출 잔액 33% 늘었지만 '만년 4등' 꼬리표 떼야

(당기순익)

'취임 1주년' 조병규 우리은행장

기업금융 평가 재건 1순위 목표
중소 특화 대출강화 드라이브

1분기 순익 8% 줄어 은행권 4위
연임 위해선 가시적 성과 필요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면서 실적개선이란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취임 후 사업을 다방면으로 확장시키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어 연임을 위해 실적 증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병규 은행장은 7월3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조 은행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 '기업금융 평가 재건' 달성을 1순위 목표로 설정했고, 올해는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등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어 중소기업 특화 채널인 '비즈(BIZ)프라임센터'를 개설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지난달 1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20개 시중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직원 환영 사과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BIZ프라임센터는 우리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산업단지마다 전략적으로 신설하고 있는 특화 채널이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금리의 투·융자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컨설팅·자산관리 등의 금융 솔루션을 윈스 톱으로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반월·시화에

서 포문을 연 이후 ▲남동·송도 ▲창원·녹산 ▲대구·경북 ▲울산 ▲호남 ▲서울 구로 ▲관교 등 8개 지역에 BIZ프라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는 기업금융 전문성을 갖춘 기업금융전문역(RM) 지점장과 팀장급이 배치돼 있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의 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BIZ프라임센터의 대출 심

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조 은행장 취임 전인 지난해 6월 말 기준 우리은행의 기업대출 잔액 132조원에서 올 5월 말에는 175조원을 기록했다. 조 은행장 취임 후 기업대출 잔액이 32.5% 증가했다.

경쟁사는 같은 기간 ▲KB은행(167조→177조원) 5.9% ▲신한은행(155조→167조원) 7.7% ▲하나은행(156조→169조원) 8.3% 성장하면서 독보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조 은행장은 '원비즈플라자' 고도화를 통해 기업금융 서비스 강화에도 나섰고, LG유플러스와 손잡고 알뜰폰(MVNO) 사업 진출에 진출하면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문제는 실적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한 789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신한은행(9286억원)과 하나은행(8432억원)에 이어 은행권 3위

다. 국민은행은 3895억원을 기록했다.

4대 은행 중 홍콩 ELS 판매 잔액이 가장 적어 배상 비용도 75억원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망스러운 결과다. 국민은행은 홍콩 ELS 배상과 관련한 충당부채로만 8620억원을 적립했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2740억원과 1799억원을 쌓았다. 2024년 시중은행 중 당기순이익 1위를 달성하겠다는 조 은행장의 포부와는 다소 거리가 먼 실적이다.

또한 최근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사고도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것을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 은행장이 올해 목표로 제시한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등은 거리가 멀어 보인다"며 "만년 4등 타이틀부터 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가 올해 말인 만큼 남은기간 실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전세금 못받고 이사... 임차권등기 신청 급증

올해 임차권등기 신청 3.4만건

강제·임의경매개시등기도 최대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법원에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건수가 올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는 총 3만3632건으로, 전년 동기 신청 건수(2만2225건) 대비 51.3%(1만1407건) 증가했다. 2년 전인 2022년 1~6월(5968건)과 비교해서는 5.6배나 많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8956건을 기록했다. 2022년 신청 건수(1641건)와 비교하면 약 5.4배 수준이다.

이어 ▲경기도 8400건 ▲인천 5392건 ▲부산 2829건 ▲대전 1709건 ▲경북 1050건 등 순이고, 보증금 가격대가 높

은 수도권(2만2748건)의 신청 건수는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할 때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경매를 통해 매물 점유에 나서는 상황도 증가했다.

전국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는 지난 5월 7만6531건으로, 전달(7만4931건) 대비 2.1%(1600건) 증가했다. 지난 1월(7만2901건)보다 4.9%(3630건) 늘었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건수는 지난

해 9월 7만10건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1월 7만건을 다시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며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는 지난 5월 14만2847건으로, 1개월 만에 2.6%(3712건) 증가했다. 지난 1월(12만5159건)과 비교하면 14.1%(1만7652건) 늘었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지난해 9월 11만건을 넘어선 이후 계속 최고 수준을 갱신하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매물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임차인은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

송영록 메트라이프 대표, 3연임 성공

주총서 100% 찬성으로 연임 승인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대표이사 사장(사진)이 3연임에 성공했다. 송 사장의 임기는 2027년까지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1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찬성 100%로 송 사장의 대표이사 연임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송 사장은 1968년생으로 대구 성광고,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2007년 메트라이프생명에게 재무 컨트

롤러(Finance Controller) 담당 이사로 합류했다. 그 뒤 재무총괄담당 전무를 거쳐 2016년 최고재무책임자에 선임됐고 2017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9월부터 대표이사에 취임한 송 사장은 지난 2021년 한 차례 연임에 성공한데 이어 이번에도 연임에 성공해 2027년까지 자리를 지키게 됐다.

/김주형 기자 gh471@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오른쪽 첫번째),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가운데),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금융

황병우 은행장 "시중은행으로 나아갈 목표 설정·공유"

iM뱅크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iM뱅크는 2024년 경영목표 달성 및 지역 밀착 활동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경주에서 '2024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및 부점장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영전략회의 이후에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인근 식당가 및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밀착행사를 진행했다.

본 행사에서는 한순우 연세대학교 교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iM뱅크

수를 초빙해 '조직을 살리는 주인의식'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으며, 이후에는 각 영업점 및 본부별 경영전략 발표, 토론이 진행됐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이번 경영전략회의는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회의로 향후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포트폴리오, 지역, 점포, 디지털 등 분야별 세부 과제를 수립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한편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보며 시중은행으로서 나아갈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공유한 자리로 뜻깊었다"며 "지역에 본점을 둔 유일한 시중은행으로 iM뱅크의 강점을 살려 전국 고객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기보와 업무협약 체결

2년간 저리대출 보증료 전액 지원

BNK금융그룹은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 소재 탄소저감 기술을 가진 기후테크 중소기업을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 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BNK금융그룹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2년간 저금리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 및 고객 보증료 전액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부산시는 2년간 이자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료, 보증료 지원과 ESG경영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탄소기초평가보증 탄소감축유형 중 외부 감축기업에 해당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은 오는 22일 부산시 사업 공고 후 8월 진행되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신청 이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